

“원형 보존계획 확정 전 민평원 개관 안돼”

〈민주평화교류원〉

옛도청 보존대책위 기자회견
“구체안 마련까지 천막농성”
내달 26일 금남로 쫓겨대회
연말까지 10만 서명운동



5·18민중항쟁 당시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27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전남도청을 반드시 보존할 것을 천명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5·18단체,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보존공간을 확정짓기 전까지 민주평화교류원 개관은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기록된 것처럼,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등 5·18 관련 보존 건물의 구체적 활용 방안이 연구용역과 5·18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천막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특히 종합계획에서 밝힌 대로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민주평화교류원은 국가시설이 입주할 공간이지만, 정부가 5·18이라는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인 만큼 5·18 보존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세부내용과 성격은 5·18 당사자와 시민사회 합의에 따르는 게 순리에 맞다는 입장도 내놨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축이 도청 건물에서 진행되는 공사 중단 ▲지역 국회의원과 대책위에 도청 건물 내부 훼손 현장 공개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올 연말까지 시도민의사를 수립해 옛 전남도청 보존안을 만들고, 시도민을 상대로 보존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을 진행해 그 결과를 문화전당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26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시도민 쫓겨대회를 열어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1980년 5·18 당시 시민군들의 최후의 항쟁지로 쓰인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 감사에서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가 ‘우리가 한 것은 페인트칠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시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며 “문화전당과 정부는 시민사회 합의 없이 5·18 시민군들이 방송실, 상향실로 썼던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존해야 할 공간을 훼손하고 건물 활용 방안도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를 바로잡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7일부터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 시민군 상향실, 방송실, 건물 외벽 총탄 흔적 등을 복원하고 5·18 민중항쟁의 역사가 담긴 현장을 예술관이 아닌 5·18기념관의 형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광주시, 시의회, 광주시교육청,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3단체,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등 지역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해 공동으로 꾸린 기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책위 요구, 정부에 최대한 수용 건의”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



이상 5·18 단체와 싸우고 싶지도 않고 기록도 없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대책위 입장이나 천막농성 등이 광주시민 다수의 열망인지는 모르겠다. 대책위도 어떤 게 광주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책위 측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책위 의견과 주장이 곧 시민사회 다수의 의견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우회적으로 농성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한 것이다.
방 전당장 직무대리는 또한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관해 5·18 단체와 대책위 측 최종 요구사항을 듣고 정부에 있는 그대로 전달한 뒤 결과를 지켜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26일 “범시민대책위가 요구사항을 특정해준 뒤 가감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 및 보존, 활용방안과 관련해 광주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에 대해선 “문화전당 차원에서 갈등을 수습하거나, 문화전당의 한 축인 민주평화교류원(도청 건물)을 개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방 전당장 직무대리는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대책위의 최종 요구사항, 모든 요구사항을 특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협상대이비에 앞아 의견 수렴이 되면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정부와 전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거렸으면 좋겠다. 더

광주교육청, 무상급식 고교로 확대

내년부터 특성화고 13곳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광주시 등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13개 특성화고 학생들이까지만 무상급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의회 등 교육계 안팎에서는 특성화고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따른 긍정적 반응 뿐 아니라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광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청이 지난 7월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장휘구 광주시교육감의 ‘고교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특성화고 무상급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교 무상급식은 애초 ‘차별과 소외가

없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 교육감의 직선 2기 핵심 공약이었다. 교육청은 그러나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재정 지원 없이는 48개 일반계 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현 계획을 변경했다.
교육청의 공약 변경으로 광주소프트웨어고와 광주공고·전남공고 등 13개 특성화고(학생 1만931명)는 내년부터 돈을 내지 않고 학생들에게 급식(점심)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은 예산을 69억원으로 추정하고 전액 부담기로 했다.
광주교육청은 현재 153개 초등학교(8만9883명)와 91개 중학교(5만2479명)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과 광주시, 5개 자치구가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1140억원 규모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학교 급식 식품비 예산의 70%를, 교육청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급식 종사자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0 해질 17:42
달출몰 04:18 달몰 16:36

호리고 비
기온 떨어지며 가을 추위가 시작되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비온뒤 맑	13/18
목포	비온뒤 맑	15/18
여수	비온뒤 맑	15/17
나주	비온뒤 맑	12/17
완도	비온뒤 맑	16/20
구례	비온뒤 맑	12/17
강진	비온뒤 맑	15/19
해남	비온뒤 맑	15/19
장성	비온뒤 맑	12/17
보성	비온뒤 맑	13/17
순천	비온뒤 맑	14/19
영광	비온뒤 맑	13/17
진도	비온뒤 맑	16/20
전주	비온뒤 맑	13/17
군산	비온뒤 맑	13/16
남원	비온뒤 맑	12/17
축산도	비온뒤 맑	15/16

지역	오전 풍향	오전 파고(m)	오전 풍속	오전 파고(m)	오전 풍속
서해	남서	0.5~1.5	북서	1.0~2.5	북서
남부	남서	1.0~2.5	북서	2.0~4.0	북서
남해	남서	1.0~2.0	서	0.5~1.5	서
남서	남서	2.0~3.0	서	1.5~3.0	서
남서	남서	1.5~2.5	서	1.5~3.0	서

구분	시간	기온
목포	간조	05:54 ~ 00:32
	만조	18:13 ~ 12:57
여수	간조	01:28 ~ 07:50
	만조	13:45 ~ 19:54

구분	날씨	기온
29(토)	맑음	10/14
30(일)	맑음	6/15
31(월)	맑음	7/16
11/1(화)	맑음	5/16
2(수)	맑음	4/15
3(목)	맑음	6/15
4(금)	맑음	7/1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낮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구분	날씨	기온
29(토)	맑음	10/14
30(일)	맑음	6/15
31(월)	맑음	7/16
11/1(화)	맑음	5/16
2(수)	맑음	4/15
3(목)	맑음	6/15
4(금)	맑음	7/15

광주 ‘안심귀가 가로등’ 1411곳 추가

위급 상황에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이 광주 시내 1411곳에 추가 설치된다. 추가된 가로등은 광산구 소촌로 여흥초등학교 뒷길과 동구 화산로 용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됐다.
스마트 가로등은 주변 도로를 영상촬영해 10일 이상 저장하는 블랙박스형과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가로등 주변 반경 50m 내에서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보호차와 경찰(112)에게 구조 요청할 수 있는 비콘형이 있다.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빛고을 스마트 가로등’ 앱을 설치한 후 위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권삼 육군 31사단장 취임



제37대 육군 31사단장으로 권삼 소장이 취임했다.
육군 31사단은 27일 사단 사령부 대연장에서 사단장 취임식을 열었다.
권 소장은 취임사에서 “주민과 함께 하며 신뢰받는 군대상을 구현하겠다”며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해 적과 싸워 이기는 정예화한 충장부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육사 43기인 권 소장은 1987년 3월 임
관해 9공수여단장과 2차사 동원참모부장,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지역기관장을 비롯해 보존단체장, 초청인사, 부대장병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ES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펠리체 승이클럽	거리 미라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종골프장(9홀) 리프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기원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성수기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객실 회원 요금의 50%

전국 13개 특영 리조트 - 비발디파크(스키/리프트/오션월드/컨트리클럽) - 소노펠리체 - 멀피노 글프 앤 리조트 - 쏘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경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거제 미라나 - 워털루호텔 여수 - 워털루호텔 고양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